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3. 23 (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금융권에 정보 공유… 최대 5년 대출 금지

조선비즈 https://zrr.kr/msXcrZ

이달 30일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 등 용도 외로 사용하면 차주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고 최대 5년간 대출 금지
금융사는 1억원 이상의 사업자 대출 취급 시 3개월 이내에 차주가 용도대로 사용했는지 점검 및 용도 외 유용을 적발하면 대출을 회수하고, 차주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

은행권, 지난해 새희망홀씨 4조 공급…올해 목표 5.1조

헤럴드경제 https://zrr.kr/ehEzKL

은행권이 자체 서민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를 통해 지난해 4조원 공급, 올해는 목표를 5조1000억원으로 상향
이는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려는 포용금융 확대 의지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수치라고 금감원은 설명

한은 총재 후임에 신현송…금융안정 역할 중시 '매파'

한겨레 https://zrr.kr/yHDn27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20일 임기를 마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후보자로 신현송 현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
그는 은행의 총 레버리지 한도 도입 등 금융시스템의 장기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중시하고, 금융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구실을 강조

금감원, 홍콩ELS 과징금 감경 시사… "재발땐 선처 없다"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rljBfu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금융권에 "(홍콩 ELS 사태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일체 감경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제재 수준을 그대로 부과하겠다"고 경고
다만 금소법 초기 시행 상황과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을 재차 언급한 만큼 금융위에 일종의 '감경 명분'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

서학개미 RIA 계좌, 23일 출시

한국경제 https://zrr.kr/Y5xJPf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매수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23일 출시
당초 RIA 계좌 도입 및 세제 혜택의 근거가 되는 환율 안정 3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출시 지연 예정이었지만, 여야는 부칙 변경을 통해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 예정

고령층 '빚투' 사상최고에…금감원 "증권사 과당 경쟁 문제"

이데일리 https://zrr.kr/B5k63R

최근 신용융자와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으로 '빚투'(빚 내서 투자)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경고장을 날려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사가 '빚투'를 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것

실손보험·車보험료 오르더니 다음달엔 보장성까지…가입자 "부담되네"

매일경제 https://zrr.kr/bqZMV5

사실상 필수보험으로 여겨지는 실손보험·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올해 인상된 가운데, 다음달부터 생명·손해보험의 수술 및 진단비 등 보장성 상품 보험료도 오를 전망
보험료 인상은 당장에는 체감 효과가 작더라도, 해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장기간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가입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

보험사 '손해율 90%룰'에 신상품 줄줄이 보류…"혁신 동력 사라졌다"

머니투데이 https://zrr.kr/6uipcQ

금융당국이 신규 담보에 대한 손해율 가정을 90% 이상으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보험사들이 신규 상품 출시 계획을 줄줄이 보류
지금까진 5년간 경험통계가 없는 신규담보의 경우 손해율을 낮게는 60%까지 잡을 수 있었는데 오는 6월 이후에는 90% 이상으로 가정

美백악관·상원,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법 잠정 합의…내달 법안심사

이데일리 https://zrr.kr/PNqFLR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여부를 쟁점으로 은행권과 디지털자산업계 간 충돌에 미 상원 법안심사가 지연돼 오던 클래리티 액트를 백악관과 핵심 상원의원들이 잠정 합의
업계도 이에 동의할 경우 4월에 상원 법안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스테이블코인 '쏠림 심화'…상위 5개 코인, 89% 독점

코인리더스 https://zrr.kr/VmFFfB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3,160억 달러 규모로 팽창한 가운데 단 5개의 우량 자산이 전체 유동성의 89%를 독점하며 거대 자본의 쏠림 현상이 심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금융의 혈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